

OECD, 지분투자 등 PSI에 대한 ODA 보고기준 합의

1. OECD DAC, 지분투자 등 PSI*의 ODA 보고기준 승인(23.10.31)

* 대출·보증·지분투자 등 민간부문 지원 금융수단을 지칭(PSI, Priate Sector Instruments)

- ☐ OECD DAC(개발원조위)은 4월 PSI 중 대출, 보증의 ODA 보고기준 (1단계) 확정*에 이어 지분투자, 메자닌 등의 보고기준(2단계) 확정

* PSI 중 대출, 보증의 ODA 보고기준은 참고자료 참조

- 지분투자, 메자닌 등에 대한 ODA 적격성 요건, 보고방식, 증여등가액 계산 할인율, 적용시기 등을 승인

2. 주요 합의 내용

【 지분투자 】

- ☐ (적용대상) 일반주, 집합투자기구(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) 주식
- ☐ (적격성*) ①DAC 적격 수원국, ②개도국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 목적, ③개발 및 재무(또는 가치) 추가성**

* 1단계 금융수단(대출, 보증), 2단계 금융수단(지분투자, 메자닌 등) 모두 동일

** 추가성, 보고요건, 모니터링 및 세이프가드 등 PSI 관련기준(3단계)에 대해서는 별도 'EDCF 국제개발협력 단신' 게시 예정

- ☐ (보고방식) 사전적 방식 또는 사후적 방식
- (사전적 방식*) 지출년도에 지분투자 액면가에 예측 투자수익(매각 대금 및 배당)의 현재가치(할인율 적용)를 차감하여 보고
 - * PSI 통계 측정의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위해 사전적 방식 권고
 - 투자수익은 예상 투자기간*과 기대수익률*에 기반한 예측치 사용
 - * 최근 10년간 매각한 지분투자의 투자기간 및 실현 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출

구 분	최저개발국/저소득국	하위중소득국	상위중소득국
할인율*	13%	10.5%	9.1%

* 기본율(5%)+국가프리미엄(각 4, 2, 1%)+지분투자프리미엄(각 4, 3.5, 3.1%)

< 사전적 방식 계산 예시 >

(LMICs 기준)

초기투자	예측 투자수익	할인계수	현재가치	증여율	증여등가액
20	28.4 ¹⁾	2.01 ²⁾	14.12	29.41%	5.88

주 : 1) $28.4 = 20 + 20 \times 6\% \times 7\text{년}$ (투자기간 7년, 수익률 6% 적용)

2) $2.01 = (1 + 0.105)^7$ (하위중소득국 할인율 10.5% 적용)

- (사후적 방식*) 지출연도에 지출 액면가로 보고하고, 지분 매각 연도에 투자수익 할인액(투자기간)을 차감(-)하여 보고

* 보고기관의 지분투자 사례 부족으로 인한 투자수익의 예측치 산출 불가 등으로 사전적 방식의 보고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적 방식으로 보고 가능

- 투자수익 할인액이 지출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, 매각연도에 초과분을 가산(+)하여 보고함으로써, 증여액을 0으로 조정*

* 보고기관의 ODA 기여를 중립(0)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

☐ (적용시기) '24년(23년 지원분)부터 적용(필요시, 2년 유예 가능)

【 메자닌 금융 】

☐ (적용대상) 후순위 대출(Junior Loan), 우선주(Preferred Equity)

☐ (보고방식) 후순위 대출은 대출, 우선주는 지분투자자와 동일*

* 후순위 대출의 최소 증여율(Grant Element Threshold)도 대출과 동일하게 0%

- 다만, 할인율은 달리 적용

구 분	최저개발국/저소득국	하위중소득국	상위중소득국
할인율*	11.5%	9%	7.6%

* 기본율(5%)+국가프리미엄(각 4, 2, 1%)+메자닌프리미엄(2.5, 2, 1.6%)

☐ (적용시기) '24년(23년 지원분)부터 적용

- 필요시, 후순위 대출은 1년, 우선주는 2년 유예 가능

3. 시사점

- 대출, 보증, 지분투자, 메자닌 등 각종 PSI 수단의 ODA 보고 근거 완비에 따라 주요 공여국의 PSI ODA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
 - DAC 회원국의 DFI(국제개발금융기관) 신설 및 유상원조 실행기관, ECA(공적수출신용기관) 등의 PSI 지원 업무 개시 등이 가능
- 지분투자는 공여국의 국익 제고와 공여국 간 협력이 용이하여 주요 공여국을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*
 - * 최근 5년간('16~'21년) DAC 회원국의 지분투자액 증가율 : 218.7%(7.4억불→23.4억불)
 - 지분투자는 개도국 진출 자국기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하며, 개발금융펀드 공동 조성을 통한 공여국 DFI 간 협력이 쉬움
- 개도국 재정사업 위주로 지원해오던 EDCF는 PSI ODA의 본격 추진을 위해 PSI 지원 전략 및 정책의 구체화 필요
 - 이는 PSI ODA 확대, 민간재원 동원 활성화 등 국제적 ODA 환경 변화에 따른 EDCF의 지원대상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- EDCF는 민간부문 지분투자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, 메자닌 금융도 신규 지원수단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음
 - 민간부문 직접투자의 제약조건 완화, DFI 설립 개발금융펀드에 대한 참여 허용 등을 통해 지분투자 활성화 기대

참고 : 한국수출입은행 글로벌 개발금융 동향 2023-제2호. 끝.

자료 : OECD DAC Private Sector Instruments - Batch2 topics

OECD.Stat 홈페이지

작성 : 선임심사역 정대영, jeongdy@koreaexim.go.kr

[2023-제2호]

한국수출입은행

2023년 5월

경험증진부

글로벌 개발금융 동향

작성자 책임심사역 이세린

OECD,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에 대한 ODA 보고기준 합의

1. OECD DAC, 민간지원수단(PSI)*의 ODA 보고기준 승인('23. 4월)

* 개도국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, 보증, 지분투자, 메자닌 등의 금융지원수단을 지칭 (Private Sector Instruments)

- ☐ OECD DAC(개발원조위원회)은 PSI 중 대출, 보증의 ODA 보고기준과 PSI ODA 보고기관의 적격성평가 방식을 확정
 - 대출·보증에 대한 ODA 적격성 요건, 최소증여율, 증여등가액 계산 할인율, PSI ODA 기관 적격성평가 양식 및 절차 등을 승인

2. PSI 논의 경과

- ☐ '15년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 도입에 따라 대규모 개발재원이 필요*하게 되었으나, 공적재원부족 및 개도국 차입여력 제약 등에 따라 민간재원 필요성 확대

* SDGs 달성에 연간 3.9조불 필요하나, ODA 지원규모는 0.2조불 수준('22년 기준)에 불과

- ☐ 이러한 맥락에서 '16년 국제사회는 공여국이 개도국 개발에 동원하는 민간재원도 ODA에 반영 필요성 제기
 - PSI를 두 가지 측정방식(기관중심 및 수단중심)을 통해 ODA로 인정해주는 통계 기준에 합의
 - 다만, 증여등가액 산출에 필요한 할인율에 합의하지 못해 '18년 부터 임시 보고방식*에 따라 PSI ODA를 보고해 오고 있음

* 증여율 25% 이상, 할인율 10% 적용, 순지출 기준으로 집계(과거 ODA 보고기준)

- ☐ OECD는 '21년 PSI 검토 과업계획안 마련, '22년 PSI 전담팀 구성 등을 통한 오랜 논의 끝에 '23. 4월 PSI 증여증가액 방식 등 승인

3. 주요 합의 내용

- ☐ PSI 중 대출·보증의 경우 ①ODA 지원대상국, ②개도국 경제개발 목적, ③재무·가치·개발 추가성(additionality), ④만기 1년 이상 등 4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ODA로 인정
- ☐ 최소증여율은 0%로 설정하였으며, 정량적 양허성 기준보다는 개발효과·민간재원 유입을 촉진하는 '추가성'을 원칙으로 제시
 - ①개발추가성과 함께 ②재무적 추가성 또는 가치 추가성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하며, 구체적 요건은 향후 DAC 회의에서 확정 예정
- ☐ PSI ODA 보고기관에 대한 적격성평가 보고양식을 개선하여 정보 공개의 투명성·책무성 강화
 - 최근 3년간 금융지원현황(연간 집행액*) 등 포트폴리오 현황과 설립 목적·주주구성, 개발목적성·개발효과·심사체계, 추가성 등 항목 기재

* 소득그룹별 차등적용된 할인율로 계산된 증여등가액을 보고

** 신규 PSI의 경우 기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PSI ODA 예측치 제공 필요
- ☐ 기존 기관 자체평가에서 사무국 주도 평가로 평가 절차를 강화하였으며, 3가지 항목*에 대해 정량평가 필요
 - * ①설립목적·주주구성, ②개발목적성·개발효과·심사체계, ③추가성
 - 각 항목에 대해 최대 5점으로 평가하며, 모든 평가항목이 4점 이상인 경우 적격성평가 통과
- ☐ 적용기간은 '24년 통계보고 시점부터이며, 필요시 1년 유예 가능

【 향후 계획 】

- '23. 5월 : OECD DAC 통계작업반회의에서 PSI ODA 보고기준 추가 논의
 - 지분투자, 메자닌, 상환조건부 증여(reimbursable grants)에 대한 보고기준
 - 추가성, 보고요건, 모니터링, 세이프가드 등
- '23. 6월 : PSI 중 지분투자, 메자닌, 상환조건부 증여 ODA 보고기준 확정
PSI 추가성, 보고요건, 모니터링, 세이프가드 등 기준 합의
- '23. 7월 : OECD DAC의 PSI ODA 기준 최종(full package) 승인

4. 시사점

- 금번 OECD DAC의 PSI ODA 보고기준 합의에 따라 개도국 민간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ODA로 보고할 수 있는 근거 강화
 - 대출·보증에 이어 금년중 지분투자, 메자닌 등 여타 금융수단에 대한 PSI ODA 보고기준 합의를 통해 개발협력 수단 확대 전망
 - DFI를 보유한 주요 회원국은 PSI를 충분히 지원해왔기 때문에 금번 보고기준 확정에 따라 ODA 실적 보고금액 대폭 확대 전망
 - 美DFC('18~'21년 연평균 지원금액 57억불), 佛Proparco(24억불), 獨DEG(19억불), 蘭FMO(19억불), 英BII(17억불) 등
 - ECA 등 개도국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공적금융기관도 추가성이 확보될 경우 PSI 지원실적을 ODA로 보고할 수 있음
 - 당행이 최근 도입('23. 5월)한 개발금융 프로그램(PIPP)*도 향후 개별 사업에 대한 추가성 확보시 ODA 적격성 검토 가능
- * 해외 민간투자 촉진 프로그램(Private Investment Promotion Program for Developing Countries)
- 우리나라도 향후 개발금융 목적의 독립기관이 설립된다면, PSI ODA 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인정받는데 용이할 것으로 예상
 - 오랜 해외사업 지원경험, 경험증진자금(EDPF), 자체 개발금융 프로그램 등을 감안할 때 수은 자회사 형태의 DFI 설립 고려 가능

자료 : OECD DAC Summary Record of the 1119th DAC meeting

DAC 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: Private Sector Instruments

작성 : 책임심사역 이세린, srlee@koreaexim.go.kr